

국적 초월한 '화합의 하모니'

청주외국인보호소 대학합창단 연주회 열어



청주외국인보호소가 8월 24일 개최한 대학합창단 연주회 모습.

청주외국인보호소는 8월 24일 청주외국인보호소 명예인권담당관 장현수 목사, 보호외국인 고충상담도우미, 보호외국인 및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호외국인과 함께하는 대학합창단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됐던 보호외국인들에게 감성적인 음악감상 기회를 제공해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다문화사회에서 서로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대근 소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보호외국인들의 환경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동감프로그램을 개발

해 보호외국인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현수 명예인권담당관은 "보호외국인들이 색다른 문화행사에서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돼 흐뭇하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인 팝 피티너(26세)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합창 음악감상 기회를 제공해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다문화사회에서 서로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대학합창단(The Korean Students Glee Club)은 1966년 음악계로 전공하는 서울시내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44년 동안 선교와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수련으로 성숙해지세요"

영동 중원불교대학 등 영국사서 하계수련회

충북 영동군의 안녕과 불교 발전의 신심과 원력을 다지기 위한 행사가 영동 영국사에서 열렸다. 영동 중원불교대학(학장 청원·영국사 주지)은 8월 22~23일 영동군사암연합회 연합신도회와 합동으로 영국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중원불교대학 5기생이 주축을 이룬 이날 입제식에는 학장 청원 스님, 황룡사 종림 스님, 유점사 준종 스님, 정원용 영동군문화원장, 유주원 민주평통회장 등 60여 내외빈과 불교대학생들이 참석했다.

청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주 모이고 자주 경을 읽고, 자주 독송을 해야 승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수련회를 통해서 흘린 땀이 내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회향할 때까지 신심과 원력을 다질 수 있게 적극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제식이 끝난 후에는 영동군 발전과 불교회관건설 발원하며 2



8월 22~23일 영동 영국사에서 열린 영동중원불교대학 하계수련회 모습.

충석탑에서부터 원각각사비까지 삼보일배 오재투지 정진이 있었다.

영동군 신도연합회 장인화 회장은 "오재투지라는 걸 목표로 하고 스님들이 하는 것만 보았는데 직접 해보니 얼마나 고행인지 알 것 같고 이를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행부가 많이 아파 오재투지를 하면서 부처님께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

는데 끝날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밝혔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밖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과 108 참회정진, 염주 만들기 그리고 5기생에 대한 수계식이 있었으며 각자 소감발표를 끝으로 회향한다. 회향 후 참가자들은 함께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분향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사는 9월 5일 오후 5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혜철 충청지사장**

옥천불교연합신도회 창립

옥천불교사암련 월례회의서 지원 논의

옥천 불교사암련연합회(회장 혜철·대성사 주지)는 8월 21일 세계불교제심종 총본산 옥천 황룡사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옥천불교사암련연합회는 8월 21일 옥천 황룡사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대중정 무변 스님은 옥천불교연합회와 세심종 교류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즉석에서 일필휘지의 휘호한 점심을 증정했다.

박영학 연합신도회회장(前 옥천교육장)의 신도회 결성 현황보고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연합신도회 창립 대법회 세부 일정과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전수하 옥천불교청년회회장은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 사암련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암련회회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회의를 마치고, 세계불교 세심종

옥천불교연합신도회는 이송희 국회의원(前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 회장), 연규학, 박효근(前 문화원장)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옥천군 사암에서 회원 5명씩을 추천해 200여 회원으로 창립법회를 병행한다.

창립법회는 9월 26일 11시 옥천농협 예식장에서 병행하고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이 법문한다. **혜철 충청지사장**

무심천 유등문화제 열린다

청주청원불교협, 4일 무심천 특별무대서

청주청원불교협회(회장 광해·금불사 주지)는 9월 4일 오후 5시부터 청주 무심천 특설무대에서 '2009년 무심천 유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청주 무심천에서 충북 파라미다 청소년협회가 주관하는 창작유등 공모전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과 불자들이 접수한 유등 띄우기, 불교전통의식인 법패시연(작법 무, 바라춤 시연), 국가와 충청북도 안년을 기원하는 축원의식, 기념법

회, BBS청주불교방송이 주관하는 축하공개방송 등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선율도 무심천을 수놓는다. 청주불교방송 민지혜월 보살의 사회로 가수 김중환(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원근(부고 부고, 천생연분), 박시원, 홍수라 등 인기가수가 공연한다.

사무총장 법정 스님(반야장사 주지)은 "지난해 보다 실속 있고 불거리가 풍성한 나눔의 축제로 준비하 고 있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성제 스님 등 명사초청강연

영동참여연대, 신미 대사와 김수온 재조명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회장 임대경)는 8월 24일 영동읍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2009년도 명사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반야사 주지 성제 스님과 충북학연구소 류정환 소장이 강사로 나와 한글장제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금강경> 번역 등 불교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해각존자 신미 대사와 괴에 김수온 선생의 업적과 일대기를 재조명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연대 임대경 회장은 "이번 강연회에서 우리 고장이 배출한 걸출한 선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인생의

가치를 정립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미 대사는 충북 영동에서 김훈(金訓)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본명이 수성(守省), 본관은 영산(永山)이며, 집현전 학자로 있다가 법주사로 출가했다. 또 괴에(乖崖) 김수온(金守溫)은 신미대사의 셋째 동생으로 조선시대 4대 문장가로 필명을 날렸다.

스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후,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짓고, <능엄경> <원각경> 등 28종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삼국유사 문화축전 열린다

일연선사 열반 720주기 다례재 봉행

일연선사 열반 720주기 추모 다례재가 8월 27일 오전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에서 봉행됐다. 제주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과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다례제는 인각사 신도회 일원진의 육법공양과 조계종 불교어산 작법학교 학원 스님들의 연산회상 시연무대 등으로 진행됐다.



8월 27일 군위 인각사에서 봉행된 일연선사 720주기 다례제.

인각사는 이날 다례재를 시작으로 9월 19일 삼국유사 골든벨, 26일 삼국유사 문화의 밤 행사를 잇따라 갖는 등 '삼국유사 문화축전' 일정에 들어갔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포교사 합창경연

5일 김제 금산사에서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총괄팀은 9월 5일 오후 4시 김제 금산사에서 '제1회 포교사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한다.

'8대계 수계실천대법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합창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8개팀이 참가해 경합을 펼친다.

이 가운데 충북총괄팀은 7월부터 매주 청주관음사에서 합창대회 출전을 위한 맹연습을 하고 있다.

충북총괄팀은 충북불교합창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남녀 혼성합창단 30명을 구성해 지정곡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자유곡 '유수대통' 등의 작품으로 대상 수상에 도전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1516주년 개산대재 10월 17일

대구 동화사 교구총회 열고 현안 논의

조계종 9교구 분사 동화사(주지 허운)는 8월 25일 오후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총회를 열어 개산대재 행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올해로 1516주년을 맞는 동화사 개산대재를 10월 17일 봉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개산대재 행사로 법요식과 보살계 수계식, 만등불사 점등식 등을

진행하고 법화 산림법회와 신채순 교수의 '다종이 인형과 함께하는 고승열전' 등의 문화행사를 개산대재 8일 전부터 갖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구 동화사는 신라 소지왕 15년(493)에 극탈 조사가 산문을 열고, 흥덕왕 7년(832)에 심지 왕사가 중창한 고찰이다.

소장문화재로는 보물 제1506호로 지정된 '사명당대장진영' 등 다수가 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 카타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역시 이름값 하는 2010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 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크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규격: 특대호-국전 (91.9x61.5cm) | 한지-국 3절 (30.5x63cm) | 대-국 6절 (30x31cm) | 소-4x6 12절 (25.5x26.5cm) | 탁상용 (21.5x15cm) | 미니 차량용 (8.8x9.5cm) | 메모 수첩용 (9.5x13.5cm)

감로기회